

목양칼럼

흔들리는 자들을 위하여

최근에 갈대밭을 거닌 적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될 때 본인에게겐 힘겨움을, 주변 사람들에게겐 염려를 자아냅니다.

신앙생활의 흔들림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혹 누가 흔들린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에 지쳐서, 따듯한 돌봄이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애들이 걱정되어서...
사실, 한 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림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담임목사로서 여러 생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다고 약속도 하고,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초청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하지만 압니다. 이런 방법들이 결코 흔들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휴, 정말 답답해.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충족성” 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변화의 요구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만이 견고함의 유일한 근거임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로,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팽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병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총회4부 (646)789-1118	
창다/중국어부 (929)204-686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OPEM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지휘 / 윤원상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7년 11월 12일
제 43-46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96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최원일 장로 2부 / 함용식 장로 3부 / 남형욱 장로 4부 / 채영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2:15-51	사회자
찬양 CHORUS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자유와 평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사백사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46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89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

오후 4:00 (11/12/17)	사회: 채현주 권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490 다같이
기도	최효진 권사
성경봉독	사회자
창세기 37:19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꿈꾸는 자	
광고	사회자
수상자 연주	
김경민(고), 송예진(초), 조윤지(중), 손연우(초), 박예니(고)	
장학금 수여식	김성국 목사
답사	김예은 학생
격려사 및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Romans 12:3-8	
Prayer	Elder Tae Hyun Whang
Sermon	Peter D. Kim
“Worship by Serving”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Иоанна 11:1-6	
Молитва	брат В. Ан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Только Слава Богу!”	

수요 기도 예배

제 31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 축제

오후 8:00 (11/15/17)	사회: 이종원 목사
I. 예배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14 다같이
기도	허장길 학우
성경봉독	김금희 학우
마가복음 10:17-22	
찬양	신학교 합창단
말씀	이규본 목사
가장 중요한 것	
II. 찬양	
독창, 합창, 간증	신학교 합창단
헌금 및 찬송	313 다같이
합창	신학교 합창단
광고	이규본 목사
찬송	502 다같이
축도	강기봉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3:37-39	
证道	陈玉捷传道
耶稣的叹息	

새가족 환영회

6과 그리스도의 교회

성례 예배

11/19(주) 저녁 예배

추수 감사의 밤 11/23(목)

만찬: 오후 6:00
예배: 오후 8:00

교회소식

11월 감사의 달 -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1/15(수) 신학교 찬양 축제	11/18(토)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문답	
11/19(주) 성례 예배	11/23(목) 추수 감사의 밤	11/26(주) 추수 감사 예배
11/29(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12/3(주) 선교회 월례회	12/6(수) 지도원 성경 공부

알림

1. **저녁 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 **수요 기도 예배**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찬양 축제로 드립니다.
3. **전도 폭발 기도 후원자 모임**이 11/14(화) 오후 7:45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4.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장소 안내**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문답이 11/18(토) 7:30pm에 있습니다.
5. **심폐 소생술(CPR) 무료 교육 안내** 1) 일시: 11/17(금) 오후 7:00 2) 장소: 4층 유년부 예배실
3) 대상: 15세이상, 단기선교나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분. 선착순 50명 4) 문의: 정길표 장로
6. **추수 감사절 안내**
1) **성례예배**: 11/19(주) 1,2,3,4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며 저녁 예배 때 성례식을 합니다.
2)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11/23(목) 오후 6시에 감사 만찬이 있고, 오후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3) **추수감사주일**: 11/26(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 **만찬 기증** 11/23(목) 추수감사의 밤 터키 만찬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각 교구장
7. **11/18(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2교구 (다음주: 3교구)
8. **가족기쁨 장학기금** 권정자 집사, 임광순 권사, 이신은 목사, 이옥수 사모, 임석환 집사, 임신옥 집사

새가족

박진기 (여호수아 1F1) 김경화 (브리스가 2F3) 김예지 (청년선교 3Y2)
이상훈 (요한 3FM2, 박경애 - 뽕뽕, 이민호 - 유아, 이지후 - 영아)
이지혜 (에스터 2F3, 이기연 - 디모데, 이윤현 - 유아부) 김기원 (청년선교 3Y2)

교우소식

출 산 이규원 집사(주연 4GN) 가정에서 11/9에 득녀(혜민) 하였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정소연 하진주 정주영 팽정은
수 / 이숙희 이금순 박대희 권정자
금 / 이유창 김재형 김유진

주 / 정은숙 이양미 배윤영
화 / 김영화 한선일 이금순 박석미
목 / 심경선 정혜경 이 나
토 / 박상용 이 나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93	러시아어 예배	27	영어부	33	중등부	63
2부 예배	351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30	고등부	63
3부 예배	328	주일 저녁 예배	282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72	새벽 예배	941	중국어 교육부	22	교회 학교 예배	487
영어 예배	177	수요 기도 예배	169	유년부	113	주일 낮 장년 예배	1738
중국어 예배	304	새가족 환영회	15	초등부	89	주일 낮 총계	2225

1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전성호 장로

헌신기도	황주현 장로	황인섭 장로	고국환 장로	이희영 장로
책임권사	최용숙 권사	김경미 권사	송경순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글라 주일식사: 교포부 (다음주: 디모테/에스더)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미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28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8장 1-8절

나의 얼굴 표정은 어떤가요? 얼굴이 웃는 상인가요? 걱정하는 상인가요? 항상 피곤해 하나요? 불평하나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얼굴이 사납다면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날까요?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 고 고백합니다.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싶으십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속은 타들어 가면서 입만 웃고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도전을 가운데서도 진짜 지혜를 만나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을 때만 사나운 얼굴이 부드럽워지고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얼굴들 가운데 이 광채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435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8장 9-13절

'권선징악'이란 단어는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벌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이 주제를 다루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과연 악한 사람이 벌 받고 착한 사람이 잘되고 있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입니다. 전도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상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1),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2)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 도 악한지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을 살 것이고 그 영원을 사는 자들에 비하면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 같을 뿐입니다(13).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욱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36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8장 14-17절

'권선징악' 대로 꼭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희생과 열심 덕택에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14).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이해하고 바로잡으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17).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15).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

며 수고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15).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혜를 더욱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90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9장 1-6절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 하나 삼장법사의 의도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의미로 요즘에는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의도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1)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쑤는 '부처님 손바닥'과는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전자가 '아무 소용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면 후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제 못 할 상황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당신의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59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9장 7-10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수고를 갚아주시려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가정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9).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이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아내와 가정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고 이 소중한 선물을 망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물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384장 / 소요리 문답 / 전도서 9장 11-18절

살다보면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서 경주에서 꼭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강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명철이 뛰어나다고 해서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11). 왜 그렇습니까? '운, 기회, 시기'라고 부르는 것이 일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운'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실력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모든 실력자들이 다 '기회'나 '운'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운'을 성경적으로 부른다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피부색으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